

이슈보고서

산업경제팀

VOL.2019-이슈-23(2019.10.15)

석유화학산업 원료별 경쟁력 비교



CONTENTS

<요약>

- I. 글로벌 에틸렌 수급 및 경쟁구조
- II. 원료별 동향과 전망
- III. 원료 경쟁력 전망과 NCC 업체 대응
- IV. 결론 및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요 약>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신규증설 확대로 향후 몇 년간 과잉 생산능력 폭이 더욱 커질 전망

- '16~'22년 에틸렌 유도품 수요는 연평균 3.7%로 성장, 동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평균 3.8%씩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과잉 생산능력 폭 확대 전망(일본 경제산업성)
- 2018년 이후 유가상승과 미국 셰일가스 생산증가 지속 영향으로 석유기반 납사크래커(NCC)와 가스기반의 에탄크래커(ECC)간의 원료가격 격차 확대
- 향후 미국 ECC 설비 가동 본격화, 아시아 지역의 공급확대 계획 등으로 공급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미국 셰일가스 생산증가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되는 한편 중장기적인 유가상승 전망으로 NCC 대비 ECC 원가경쟁력 우위가 향후 10년 정도 지속될 전망

- 현재 ECC 설비 마진이 NCC 설비 마진 대비 높는데 이는 원재료인 에탄 가격이 납사 가격 보다 낮기 때문
- 2020년대 중후반까지 셰일가스 공급증가세 지속 전망에 따라 에탄가스 초과공급도 지속 되어 현재의 에탄가스 가격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전망
- 에탄 뿐 아니라 미국 프로판 생산 및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어 프로판의 석유화학원료 사용 비중도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
- 다만 202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세 둔화로 에탄, 프로판 공급량 지속 확대에 한계가 있어 2020년대 이후 납사 기반 설비 증설이 증가할 전망
- 한편 중국 석탄기반 설비(MTO/CTO)는 최근 환경규제 강화, 메탄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마진 악화로 MTO 프로젝트의 지연·취소로 증설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양호한 CTO 프로젝트 중심의 증설이 지속될 전망
- 동북아 지역 석유화학설비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에탄가스 가격 경쟁력 우위 지속 전망 등에 따라 기존 납사 중심에서 가스 기반 원료 등으로 다변화 추세

NCC 기반의 국내업체들은 향후 공급경쟁 심화와 저가의 가스원료 설비 확대에 대비하여 명확한 전략방향 수립 및 실행으로 경쟁우위 선점 필요

- (Cost Leadership) 공급비용 곡선 상 하단에 위치하여 원가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한 자산/시장의 지리적 다변화와 해외투자 적극 검토
- (Product Leadership) 유가, 공급경쟁 등 외부환경 영향을 덜 받는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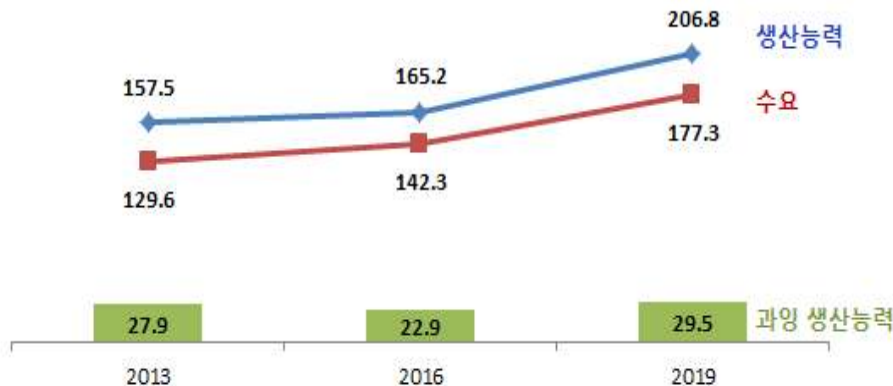
I. 글로벌 에틸렌 수급 및 경쟁구조

(수급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에틸렌¹⁾ 유도품 수요가 '16년~'22년까지 연평균 3.7%의 견조한 성장 전망(일본 경제후생성)

- 동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중국·인도 등 아시아, 미국, 중동 등지를 중심으로 연평균 3.8%씩 증가, 중장기적으로 과잉 생산능력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에틸렌 생산설비 원료는 크게 납사와 에탄가스로 양분되는데, 아시아, 유럽은 납사를 원료로 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²⁾ 설비가 주축을 이루고, 중동, 미국 등 천연가스 생산지 중심으로 에탄가스를 원료로 하는 ECC³⁾(Ethane Cracking Center) 설비 운영

전 세계 에틸렌 생산설비의 과잉 규모

(단위: 백만 톤)



주) 수요는 에틸렌 유도품 수요를 에틸렌 양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18.10월)

(경쟁구조 현황) '18년 이후 유가상승으로 NCC와 미국 ECC 간의 원료 가격 격차 확대*

* NCC와 ECC의 에틸렌 생산원가 격차(NCC-ECC, \$/톤): ('16) 약 190 → ('18) 약 380

- 유가상승에 비해 미국 에탄가스 가격은 낮게 지속됨에 따라 ECC 경쟁력 우위 지속
- 다만 중국 석탄기반 설비인 CTO⁴⁾/MTO⁵⁾에 비해서는 아시아 NCC 경쟁력 우위 유지
- 일반적으로 메탄올은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생산하며, 메탄올 총수요 중 MTO 원료수요 비중이 낮아, MTO 사업성과 무관하게 메탄올 가격이 형성되는바 2019년 초 동절기 중국 난방용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메탄올 가격이 동반상승하여 MTO 설비 경제성 대폭 악화

1) 에틸렌은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유분으로 일반적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시장규모를 에틸렌 수급으로 추정

2) NCC: Naphtha Cracking Center

3) ECC: Ethane Cracking Center

4) Coal-to-Olefin, 석탄을 원료로 Ethylene 및 PE 등을 생산하는 설비

5) Methanol-to-Olefin, Methanol을 원료로 Ethylene 및 PE 등을 생산하는 설비



(경쟁구조 전망) 미국 ECC 설비 가동 본격화, 아시아 지역 공급확대 계획 등으로 경쟁 심화 전망

- 미국의 대규모 에탄크래커가 가동되는 '17년 하반기~'19년 상반기 이후 미국 수출 증가에 따른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심화 우려
- 운송료 등을 감안하면 에탄가스 기반의 미국제품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초래 가능
-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 수요증가분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과잉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아시아 지역이 세계 에틸렌 설비 증설을 주도, 아시아 에틸렌 설비는 2019~2023년 집중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00만 톤 수준의 에틸렌 생산능력 확대 전망
- 석유화학업체들 뿐 아니라 정유기업들도 중장기적인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석유제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석유화학사업 부문에 투자 확대
- 아시아 지역 설비투자는 대부분 NCC 형태이며, 신규 증설 붐에 따른 가동률 저하, 경쟁 심화 및 유가상승 시 수익성 악화 등 문제에 직면 가능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는 석유화학산업의 공급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

에틸렌 공정별 생산원가 비교



자료: IHS Markit(2019)

- 이하에서는 가스기반의 석유화학원료(에탄, 프로판 등)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 원료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비교함



II. 원료별 동향과 전망

1. 에탄

에탄은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생산 확대가 지속되어 가격 하락 안정화 기대

- 에탄 소비는 북미, 중동 등 생산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미국 ECC 설비의 추가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생산분 여유가 있어,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증가 전망
- 에탄 운송상의 한계 등으로 NGL 생산 지역인 미국/캐나다, 중동 등이 주요 수요처
- 글로벌 에탄시장 규모 8,500만 톤 중 교역량은 약 400만 톤에 불과하여 미국 에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작은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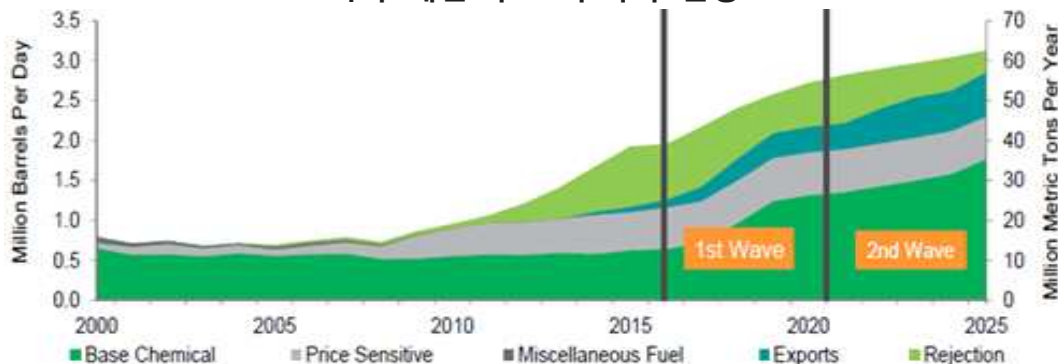
세계 지역별 에탄 수요 추이와 전망



자료: IHS(2019)

- 에탄은 주로 미국 내 ECC 설비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일부가 수출용으로 사용
- 미국 내에서 ECC 원료로 사용되는 양이 연간 약 2,400만 톤이고, 수출량은 400만~500만 톤 수준
- 2015년까지는 캐나다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출, 2016년 3월부터 해상수출을 개시하여 노르웨이(INEOS), 인도(릴라이언스) 등에 ECC 원료용 에탄 공급
- 미국 에탄 수출인프라 확충으로 향후 에탄 수출량 확대 전망

미국 에탄 수요 추이와 전망



자료: IHS(2019)



중국은 에탄 기반의 ECC 설비 증설 계획 중이나 최근 중국정부의 미국산 에탄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으로 투자결정 지연

- 중국에서 미국산 에탄을 수입하여 ECC 설비 운영 시 에탄 운송비 등 운영비 부담이 크지만 미국대비 자본투자비가 50~70%로 낮아 저렴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ECC 설비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
- 미국에서 아시아까지의 에탄 운송비(톤당 약 200달러)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 고유가 시기에는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 지속으로 아시아 ECC 설비 투자가 거의 전무
- 2017년 이후 유가 상승으로 다시 ECC 투자를 검토하는 중국 기업들 증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투자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중국 ECC 증설 계획

No.	Company	Ethylene Cap/KTA	Consume Ethane/KTA	Potential Ethane Supplier	Status
1	Ganergy Group	2,000	2,600	AEC	FS
2	Bohai Chemical	1,000	1,300	Enterprise	EIA
3	Nanshan Group	2,000	2,600	AEC	EIA
4	Yangquan Coal	1,500	2,000	AEC	FS
5	Satellite PC	2,500	3,250	ETP	Under construction
6	SP Chemicals	650	270	INOES	Under construction
7	Guangxi Investment	1,000	1,300	N/A	FS
8	Mingyuan and Tongkun	2,000	2,600	ONEOK	FS
9	Fujian Yutime	2,000	2,600	Enterprise	FS
10	Fujian Eversun	1,500	1,950	AEC	FS
	Total	16,150	20,470		

자료: IHS(2019)



2. 프로판

프로판, 부탄 등 LPG(액화석유가스) 생산은 미국, 중동 등 가스생산 지역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제 1위의 LPG 수출국으로 부상

- 세계 LPG 생산량 증가는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인 미국, 중동이 주도
-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셰일가스 생산확대의 영향으로 LPG 생산량 급증, 중기적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 중동은 수반/비수반 가스, CIS는 러시아 수반가스 생산확대에 따른 LPG 생산 증가
- 중국, 인도는 정제설비 확대에 따른 LPG 생산이 동반 증가하나 LPG 부족으로 수입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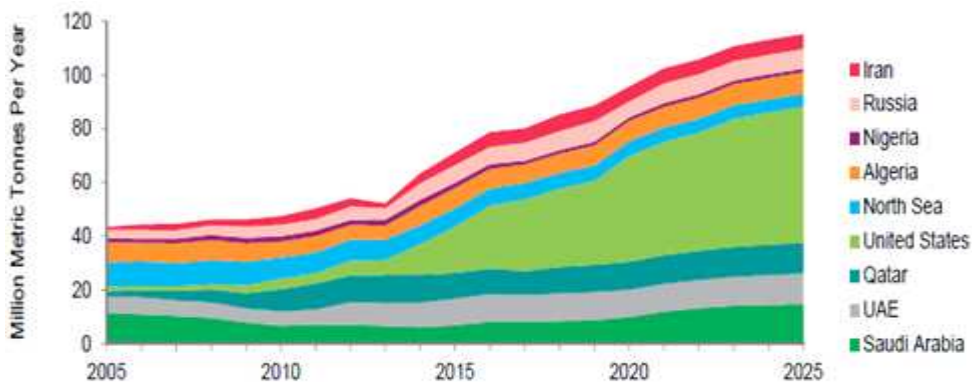
세계 LPG 생산량 추이 및 전망



자료: IHS(2019)

- 미국은 프로판 등 LPG 생산증가분 대부분이 수출로 이어지며 세계 1위의 LPG 수출국으로 부상
- 최근 미국 LPG 수출량은 연간 3,000만 톤 규모로, 사우디 수출량 1,000만 톤의 3배에 달함
- 부탄은 NGL에서 추출되는 비중이 프로판 대비 낮고, 미국 내에서 대부분 소비되어, 미국 LPG 수출은 주로 프로판 중심으로 이루어짐

세계 LPG 수출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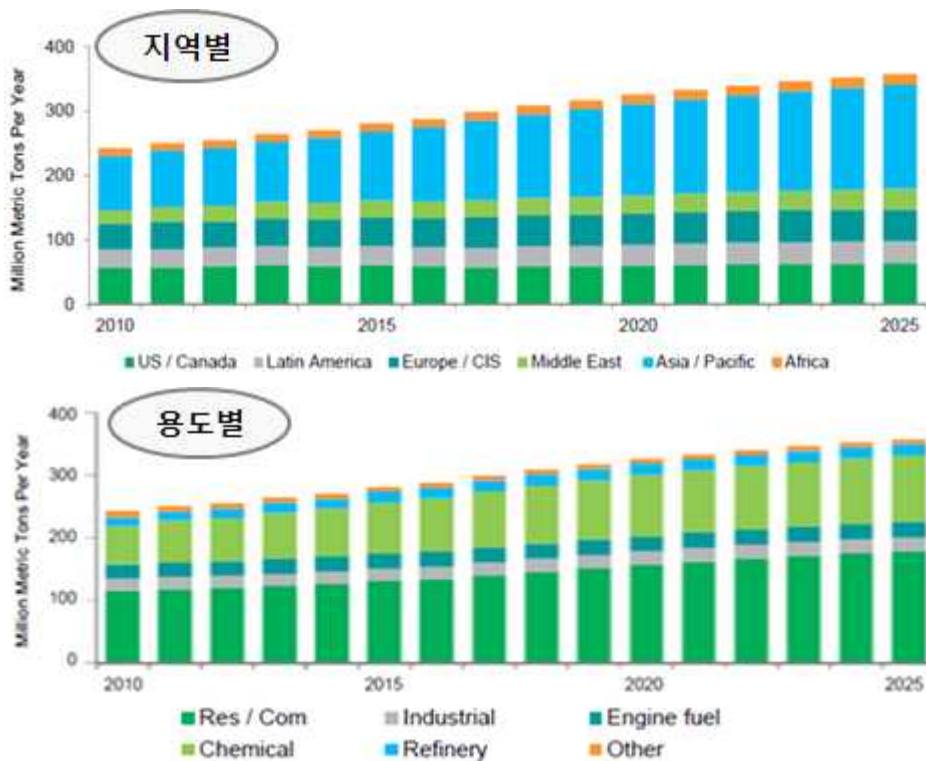
자료: IHS(2019)



LPG 수요 증가는 아시아가 주도, 과거에는 가정용/상업용 수요가 주도해 왔으나 향후에는 PDH⁶⁾, 납사 크래커 등 석화원료용 수요도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LPG 수급 타이트 전망

- 프로판 생산은 단기적으로 미국 셰일가스 리그수 감소로 인해 둔화되나, 비수반가스 생산량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PDH 프로젝트 확대 예상
- 현재 미국 프로판 수출증가분 중 상당 부분은 아태지역 PDH 설비 원료로 수입
- 중동산 LPG 수입에 의존해 오던 동북아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중동산 수입량을 축소하고, 미국산 LPG 수입량 확대
-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납사 가격 동반상승에 따라 프로판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납사 대체 원료로서 사용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⁷⁾(Platts)

세계 LPG 지역별/용도별 수요



자료: IHS(2019)

6) Propane dehydration(프로판 탈수소화설비): 프로판 탈수소화 공정을 통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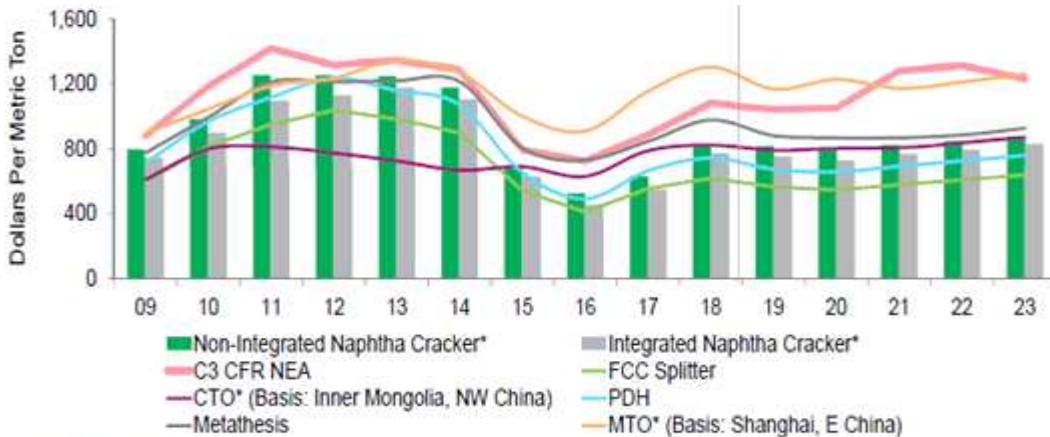
7) NCC 설비에서 납사 대신 프로판을 원료로 투입할 수 있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프로판 가격이 납사 대비 87~92 수준이면 프로판 투입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함. 프로판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에틸렌, 프로필렌 계열 수율이 높고, 방향족 화합물인 BTX 수율이 낮은 특성이 있음.



동북아 지역의 PDH 설비는 프로판 가격 하향안정화에 힘입어 중기적으로도 타 원료기반 설비 대비 원가경쟁력 우수 지속 전망

- 다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시 2020년 이후 글로벌 PDH설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중국의 PDH 원가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
 - 중국은 PDH설비 확대에 따른 프로판 수요 급증, 중국의 프로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이 26%이고, 미국 프로판 수출의 약 13%가 중국향
 -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프로판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2019년 2월 기준 중국의 미국 프로판 수입량은 0을 기록하는 등 미국 프로판 가격 하락 가속화
- 중국 외 동북아 지역 PDH 설비는 프로판 가격 약세로 경쟁력 지속 전망

동북아 지역 프로필렌 생산공정별 원가 비교



Notes: *Per Metric Ton Light Olefins

자료: IHS(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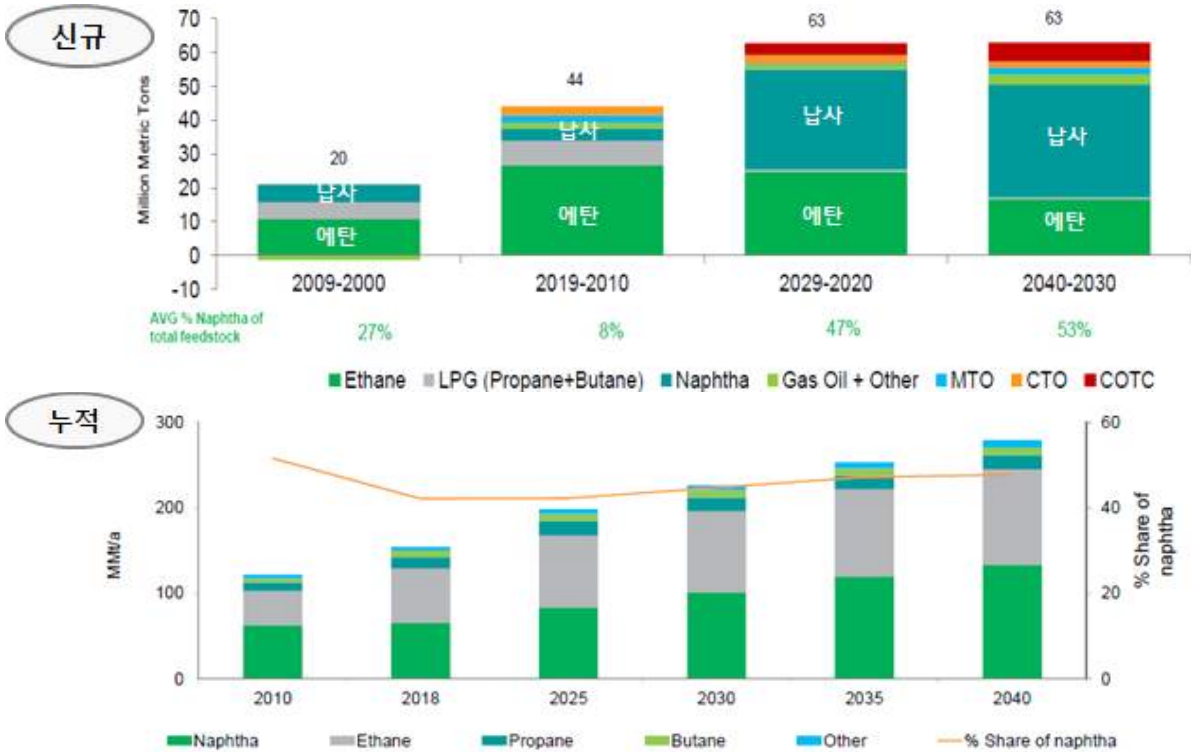


3. 납사

2000년대 이후 NGL 기반의 설비 증설 중심으로 납사 원료 비중이 낮아졌으나 2020년대 이후 납사기반 설비 신증설 확대로 납사 비중 증가 전망

- 미국 셰일 생산량이 2020년대 이후 증가세 둔화 전망에 따라 에탄, LPG 공급량 지속 확대도 한계
- 2000년대 이후 NGL 기반 설비 중심의 증설에서 2020년대 이후에는 납사 기반 설비 증설이 다시 확대될 전망
- 한편 Crude Oil을 원료로 사용하여 Chemical로 전환하는 설비(COTC)도 2020년대 후반 이후 가동 예정

원료별 신규 에틸렌 생산량과 누적 생산량 추이와 전망



자료: IHS(2019)



4. 석탄/메탄올

중국에서 추진되는 CTO/MTO 프로젝트는 환경규제 강화, 저유가 등에 따른 상대적인 마진악화로 인해 증설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CTO 중심의 증설 지속 전망

- 중국 CTO 프로젝트는 2022년경까지 총 694만 톤의 올레핀 증설 계획
- MTO 프로젝트는 수입 메탄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악화로 프로젝트 지연/취소로 증설 둔화
- MTO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총 340만 톤의 올레핀 증설 계획이며 2022년 이후에는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한 상황

중국 CTO/MTO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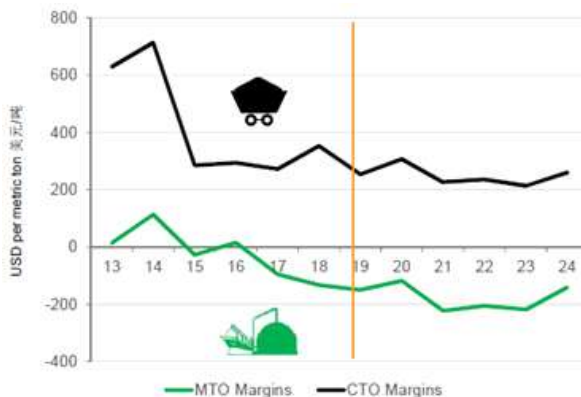
CTO	위치	지역	올레핀	에틸렌	프로필렌	유도체(천톤)	가동 시기
Shandong Luxi Chem	Liaocheng	E China	300	120	180	-	2Q19
Ningxia Baofeng No.2	Ningdong	NW China	600	300	300	300PE, 300PP	2Q19
Zhong'an United Coal Chem	Huainan	E China	700	350	350	350PE, 350PP	mid-19
Shenhua baotou, expansion	Baotou	NW China	680	300	380	300PE, 400PP	1H20
Yanchang & China Coal Yulin	Yulin, Shaanxi	NW China	600	300	300	300PE, 300PP	mid-20
Shenhua Shaanxi, 1st phase	Yulin, Shaanxi	NW China	680	300	380	300PE, 380PP	mid-20
Huating Coal	Pingliang, Gansu	NW China	200	30	170	160PP	2H2
China Coal Yulin Energy No.2	Yulin, Shaanxi	NW China	600	300	300	300PE, 300PP	mid-21
Qinghai Mining	Golmud, Qinghai	NW China	680	260	420	260PE, 420PP	2H21
Shanxi Coking Corp	Hongdong, Shanxi	N China	600	300	300	100PE, 100OCU, 400PP	2H21
Sinopec Zhijin	Zhijin, Guizhou	SW China	600	300	300	300PE, 300PP	2H22
Shenhua Ningxia-SABIC	Ningdong, Ningxia	NW China	700	300	400	345PE, 423PP	2022 onwards
Sub-Total			6,940	3,160	3,780		
MTO							
Jiutai Energy	Ordos, Inner Mongolia	NW China	600	280	320	280PE, 320PP	2Q19
Jilin Connell Chem, No. 1	Jilin, Jilin	NE China	300	120	180	-	2Q19
Nanjing Chengzhi, No. 2	Nanjing, Jiangsu	E China	600	240	360	-	2Q19
Qinghai Damei	Xining, Qinghai	NW China	700	300	400	300PE, 400PP	3Q19
Tianjin Bohua No. 1	Tianjin	N China	600	300	300	-	mid-21
Sub-Total			3,400	1,540	1,860		

자료: APIC 2019, 키움증권 리서치

메탄올 가격상승으로 중국 MTO 경제성 열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납사(52%), 에탄(62%), 석탄(19%)기반의 올레핀 생산 설비 대비 MTO(73%)는 원료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어 메탄올 가격 상승 시 경제성 열위(원료비중은 2018 기준)

CTO/MTO 마진 추이와 전망



자료: IHS(2019)



Ⅲ. 원료 경쟁력 전망과 동북아 NCC 업체 대응

세일가스 생산증가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되고, 중장기적인 유가상승 전망 등으로 NCC 대비 ECC 원가경쟁력 우위가 향후 10년 정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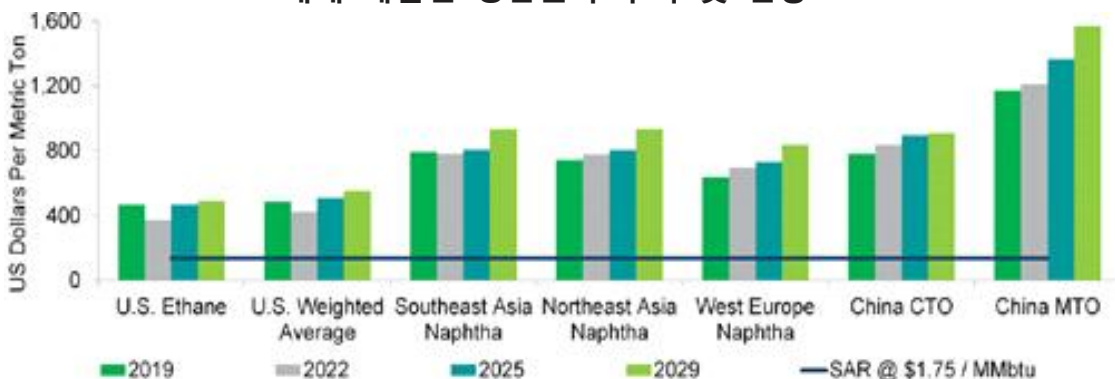
- 미국 세일가스 생산 급증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석유기반 납사 vs. 가스기반 에탄 가격 격차 확대
- 특히 고유가 시기에 납사와 에탄가스 간 가격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재인용

- 저렴한 에탄가스 기반의 미국 ECC 설비 원가경쟁력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NCC와 ECC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ECC 마진이 NCC 마진 대비 톤당 250달러 정도 높은 수준
- 이는 원재료인 에탄이 납사 대비 가격이 낮기 때문이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세일가스 공급 증가세 지속 전망에 따라 에탄가스 초과공급도 지속되어 현 수준의 에탄가스 가격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전망

세계 에틸렌 생산원가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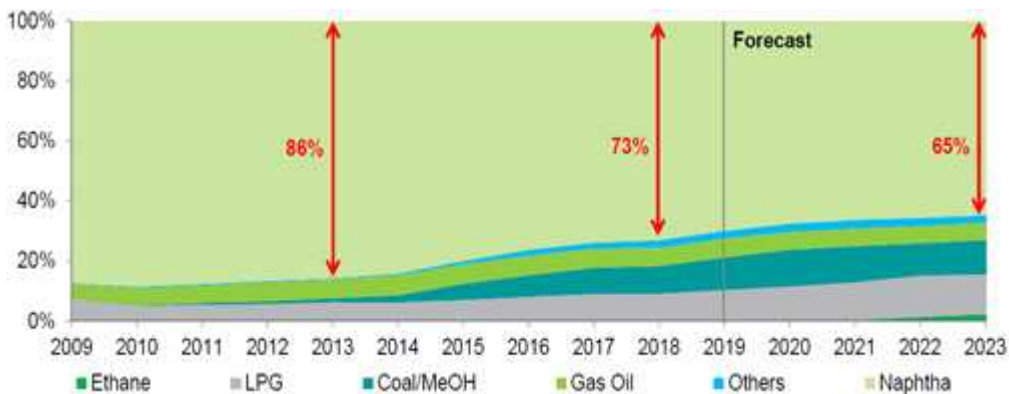
자료: IHS(2019)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에탄가스 가격 경쟁력 우위 지속 전망에 따라 동북아 석유화학 설비 원료가 기존 납사 중심에서 가스 기반 원료 등으로 다변화

- 단기적으로 아시아 석유화학산업에서 가스기반의 원료 채택은 에탄 조달상의 이슈로 제한적
- 중장기적인 유가상승 시 아시아 지역에서 납사 대체원료로서 가스기반 원료(에탄가스, LPG 등) 채택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유가상승으로 가스, 석탄 등 대체원료설비 대비 NCC 원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면 중국의 미국산 에탄가스 원료 도입이 증가할 것
 - 한편 중국 석탄화학설비는 최근 환경 이슈 부각, 경제성 약화 등으로 신증설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비중 확대는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에틸렌 설비의 납사 원료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전망
 - 아시아 지역 에틸렌 설비의 납사원료 비중은 2013년 86%에서 현재 73%, 2023년에는 65%까지 감소할 전망(IHS Markit)
 - 다만 202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 둔화 전망에 따라 석유화학설비 원료로서 납사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

동북아 지역 에틸렌 설비 원료 비중 추이와 전망



자료: IHS(2019)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둔화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저가원료 확보, 사업다각화 등 전략 추구

- 롯데케미칼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 2015년에는 삼성화학을 인수하며 국내 종합화학회사로 부상, 최근에는 원료 및 시장 접근성이 좋은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등 정통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 미국 ECC 및 MEG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 1분기부터 상업적 가동 개시
 - 미국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ECC 설비 지분 투자, 말레이시아 NCC 업체인 타이탄 케미칼 인수, 인도네시아 NCC 투자 검토 등 글로벌 거점 확보에 적극적



- LG화학은 NCC 증설 및 고부가 제품군 확대 등 석유화학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전지 사업, 정보전자사업등 비석유화학부문의 투자를 병행하며 사업 다각화
 - 특히 이차전지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속확대를 위해 전지사업 부문 확장 계획
- 한편 국내 정유사들은 중장기적인 석유제품 수요둔화에 대비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고부가 석유화학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납사 판매 대신 NCC 설비 증설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석유화학제품 공급경쟁에 가세할 전망
 - 2024년까지 국내 에틸렌 설비 증설 물량(403만 톤)의 약 75%를 정유사들이 차지할 전망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내 NCC 설비의 납사 수입의존도 증가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 중장기적인 유가상승 전망으로 향후 NCC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미국 세일가스 생산증가세 지속으로 ECC, PDH 등 가스기반 원료를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 원가경쟁력 우위가 당분간 지속
- 또한 글로벌 오일 메이저 뿐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산업 진출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이 더욱 심화되며 동북아 NCC 업체들의 사업 리스크(저가 원료의 안정적 확보 등)도 확대될 전망
-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2016~2017년의 호황에서 벗어나 2018년 이후 향후 몇 년간은 미국과 아시아 중심의 대규모 공급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둔화 등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장치산업 특성상 석유화학산업은 호불황이 주기적(7~9년)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나,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 지속
-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업황에 상관없이 자사 성장전략(다운스트림 사업과 연계된 원료 확보, 고부가 기능성 제품 투자 등)에 부합하는 투자를 꾸준히 실행해 왔다는 공통점
- 국내 기업들도 공급경쟁 심화와 유가 변동성 확대 및 저가원료 제품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명확한 전략방향 수립과 추진 필요
- (Cost Leadership) 공급비용 곡선 상 하단에 위치하여 원가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한 자산/시장의 지리적 다변화와 해외투자 적극 검토
- (Product Leadership) 유가, 공급경쟁 등 외부환경 영향을 덜 받는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 제공

※ 참고자료

1. 이동욱, "2019년 하반기 전망, Adaptability is the Key",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2019.5월
2. 일본 經濟産業省 製造産業局素材産業課, "世界の石油化学製品の今後の需給動向(総論)", 2018.10월
3. IHS Markit, "World Petrochemical Conference 2019", 2019.3월 등